

社 說

학생 참여 통한 공동체 문화형성

—금번 대동제를 맞이하여

대동제가 오늘부터 양정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대학문화의 꽃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동제를 그 학기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칭하기에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 대동제는 시국문제로 다소 늦어졌으나 충분한 준비와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간 학생회간부의 준비비축, 통폐부족과 학생들의 참여의식결여로 인해 대동제의 본래의미가 퇴색해왔음은 사실이다.

대동제가 대학의 '축제'에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 또한 많이 변화돼왔음을 볼 수 있다. 사회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학일만이 가질 수 있는 낭만과 순수라는 의미를 벗어나 현실과 의 부단한 접촉과 공동체문화의 형성이라는 명제는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에 반해 지나친 현실성만을 강조해 '어우러짐의 장'으로서 대동제의 의미가 퇴색된 점도 없지 않았다. 또 이런 대동제에 많은 학생과 사회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동제의 진정한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오히려 대동제 자체의 변화·발전에도 도움이 돼 보여주기식 행사위주의 진행과 학생회간부의 지나치게 의식적인 대중선동이 지양되고 진정한 공동체문화의 함양과

참여의식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생들의 참여의식은 이전의 축제때부터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온것을 간파할 수 없다. 대학인이 갖는 이중적인 속성, 즉 자유분방한 성격과 의식적인 참여로의 성격은 서로 상반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동제가 그 의의나 목적만큼 풍부한 프로그램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행사의 내용성과 학생대중의 참여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번 대동제의 경우도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내용성 또한 담보한 것이 돋보인다. 다만 아쉬운점은 대동제기간 사망사건이후 지난 1개월간 정치투쟁일정과 겹쳐 다소 준비가 부족한 면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대학의 목표가 건강한 문화의 창조와 학문·연구의 발전이라고 할때 대동제를 일방적인 행사의 수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일반학생들도 대동제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행사로 치부하지 않아야겠다. 대학과 사회에 진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때 대동제는 우리모두가 '하나되는 장'으로써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의 지속적 수행'만이 해결책

—정부의 부분내각 사퇴를 보며

지난 주말 말쑥하고 시원했던 총리의 교체에 이루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이번의 총리개편은 공권력에 의한 대학생의 죽음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내면에는 그간 6공화국의 실정이 상정적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총리개편의 의미는 내각의 능력에 대한 의문보다는 6공화국의 실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점에서 보자면 이번 총리개편에는 두가지 실책을 지지고 있다. 첫째는 전임총리의 퇴임이 때를 잃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새로운 총리의 면모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시간의 싸움인지도 모른다. 정책시행이나 판단이 국민의 뜻보다 너무 빨라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반면, 그 시기가 너무 느려서는 국민들의 증가된 욕구를 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6공화국의 정책이나 판단은 대개 국민들의 뜻보다 늦은 것이 많아서 시정에서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는 비난을 받을 지경인데 이번의 퇴임 역시 그러하다. 그 때를 잃으면서 '총리의 퇴임'이라는 행위가 그나마 정부의 속죄하는 의미를 품을 수 있을 것도 이제는 그것이 국민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형식의 것이 되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새총리에 대해서는 인물평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들로서는 그 사람이 전교조문제로 수백 수 천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낸 장본인임을 유념하고 싶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의 말대로 그 회생이 '원칙'을 건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은 이해한다고 하자. 공권력의 한 책임자로서 법집행을 엄격히 수행하는 점은 일종의 기술상의 문제요, 따라서 그 값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점, 그 자체는 토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가 신봉하는 원칙에는 문제가 있다. 이미 교사가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상행속에 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권력 조직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존재가 되어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며 교육만 전담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총리로서 국정을 총괄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 학생은 공무원, 육체노동자는 노동자, 문필가는 문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기묘한 '분담의 논리'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그를 원칙론자로서만 아니라 민주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소위 '강성인물'로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의 추리에서이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총리의 임명만으로 이 혼란이 무마되리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다. 따라서 새총리의 임명에 무슨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애초에 아니었다. 다만 새총리의 인물을 통해 대통령의 후반기 정치의 방향을 짐작해보고자 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총리의 인물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차후의 정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다시금 시국의 극복은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아무나 입에 대다보니까 이제는 신선감이 사라져 버렸지만 '민주화의 지속적 수행'만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곡간'열쇠 노리는 '달러'압력

미 통상압력과 금융시장 개방위기

1. 미국의 통상압력의 실상과 본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세찬 바람이 90년 한 해동안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다가, 91년 벽두에 터진 걸프전쟁에 온 국민의 관심이 돌려져 있는 동안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애초 협상종결시한이 90년말로 잡혔는데, 협상결과가 물고 울파장의 실체는 이 나라 경제의 앞날을 '먹구름'으로 뒤덮을 임박한 '개방명세'로 나타날듯이 느껴졌다. 그러나 당장의 큰 한파는 없었어—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미국의 쌍무협상을 통해 스티밍업(?) 문호를 개방했던 것을 차지한다면—외형적으로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언론의 지면을 크게 장식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태풍은 많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잠겨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대미 종속적 성격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의 일관성생생애에 다름아닌 쌍무협상의 형태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권은 90년 2월 미국과의 무역실무회담에서 교환한 비밀회담록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우리는 미국측 입장을 전폭 지지하며, 만약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가 미국측에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앞으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폭의 개방을 해준다고 합의했다.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약속적 성격에다 작년에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쌍무협상의 현안(아래도표)의 내용을 보면 쌍무협상을 통해 강화될 경제개방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것이라는 UR협상의 배경은 무엇일까?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구주관으로 열리는 여덟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지난날의 협상과 다른 점은 일반무역협상 이외에 금융, 유통, 교통, 통신기술, 용역, 지적소유권 등 서비스 부문과 노동력 이동 등 15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 새로운 분야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가트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상품 시장개방과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농산물분야 협상과 금융·유통·교통 등 서비스분야이다. 미국은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몇년전부터

이 분야의 협상타결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간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쇄퇴해가는 미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월등한 우위를 점하는 미국 농산물을 한국, 일본, EC 등에 자유롭게 수출하고 또한 개발도상국에 금융·유통·기술·지적소유권 등 서비스분야를 장악하여 손쉽게 부를 획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미국은 민수산업보다 군수산업을 강화하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민간제조업은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 위임하는 국제분업체제를 창출시켰다. 아울러 미국농민들에게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자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쌍무협상 통한 개방압력 거세질 듯

'UR반대·반외세투쟁' 펼쳐야

이는 결국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농산물의 우위와 군수산업, 금융, 정보 등 서비스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우위를 이룬 반면 민간제조업의 쇄퇴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민수제조업의 자유무역주의에 제한되어 온 GATT체제가 미국에 의해 다시금 강제로 재편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II. 드높아지는 금융시장 개방 파고와 그 전망

앞서 얘기했듯이 공산품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서비스교역 또는 농산물교역에 의해 보충하려는 미국의 속셈은 최근 들어 공공연한 對韓 경제개방압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5월16일 기재부차관은, 한국정부는 아직도 금융시장 자유화에 있어서 미국의 기본적 관심사들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금융자본 및 외환시장자유화를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개방공세가 무차별적으로 가속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벽은 일거에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금융의 자율성이 극도로 침해받았을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백여년에 걸친 자본주의적 경쟁속에서 성장한 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과 나란히 경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은행의 경우, 1967년 미국의 은행이 처음 들어온 이래 현재 사무소까지 합쳐 90개의 영업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국내지점의 총자산은 89년말 현재 7조8천3백64억원으로 국내 전체 금융

50%까지 허용하는 것(국내은행의 경우 25%)등이 있다.

증권시장의 경우도, 81년 발표된 4단계의 점진적 개방계획에 의해 90년대에 완전 개방키로 되어 있다. 정부는 88년말 이의 구체화된 개방계획으로 '자본시장의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 방안'을 내용으로 92년부터는 일반국민의 국내 증권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내 증시규모는 시가총액으로 약 1천억 달러(약70조원) 수준인데 미국이나 일본의 증시 규모가 3조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권시장이 외국

인건	요구사항
과소비 추방운동관련	대국민 홍보 외채자 구매자에 대한 세부감사 중단 외국은행 규제방안 완화
금융	-자본도입, 증권 관련 주제 완화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점차 간소화
로열티에 대한 관세	(세무부와 국제회의의 입장 설명을 요구)
연금지급 수입	지급방식 변경
보험	보험업자 자율화
유통업 개방	자동차, 전자제품, 연쇄점 개방
TV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매출 실태 공개 및 방송실시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 위반 사례공개
통신	통신장비 표준화

국 해외 불법투자자성장(핫머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시장 교란, 기업 매수 합병(M&A)·복합 금융상품 등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시장 잠식, 국내기업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의 경우,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한국지사들이 아직 큰 힘을 쓰지 못하나 세계 최대의 미국 프루덴셜보험, 세계2위의 일본의 일본생명 등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의 '반투맨식' 영업에 침투해 올 경우 국내업계의 '성지'가 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합작 허용으로 인한 파산상금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은 물론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투기가 만연할 경우 나라의 질서는 벼랑끝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제 금융시장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의 대미종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독점자본에 편승한 국내재벌기업들의 파탄성은 더욱 강화되고 그렇게 못한 중소기업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불안전공용과 물가상승,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조→차관→직접투자→자본시장의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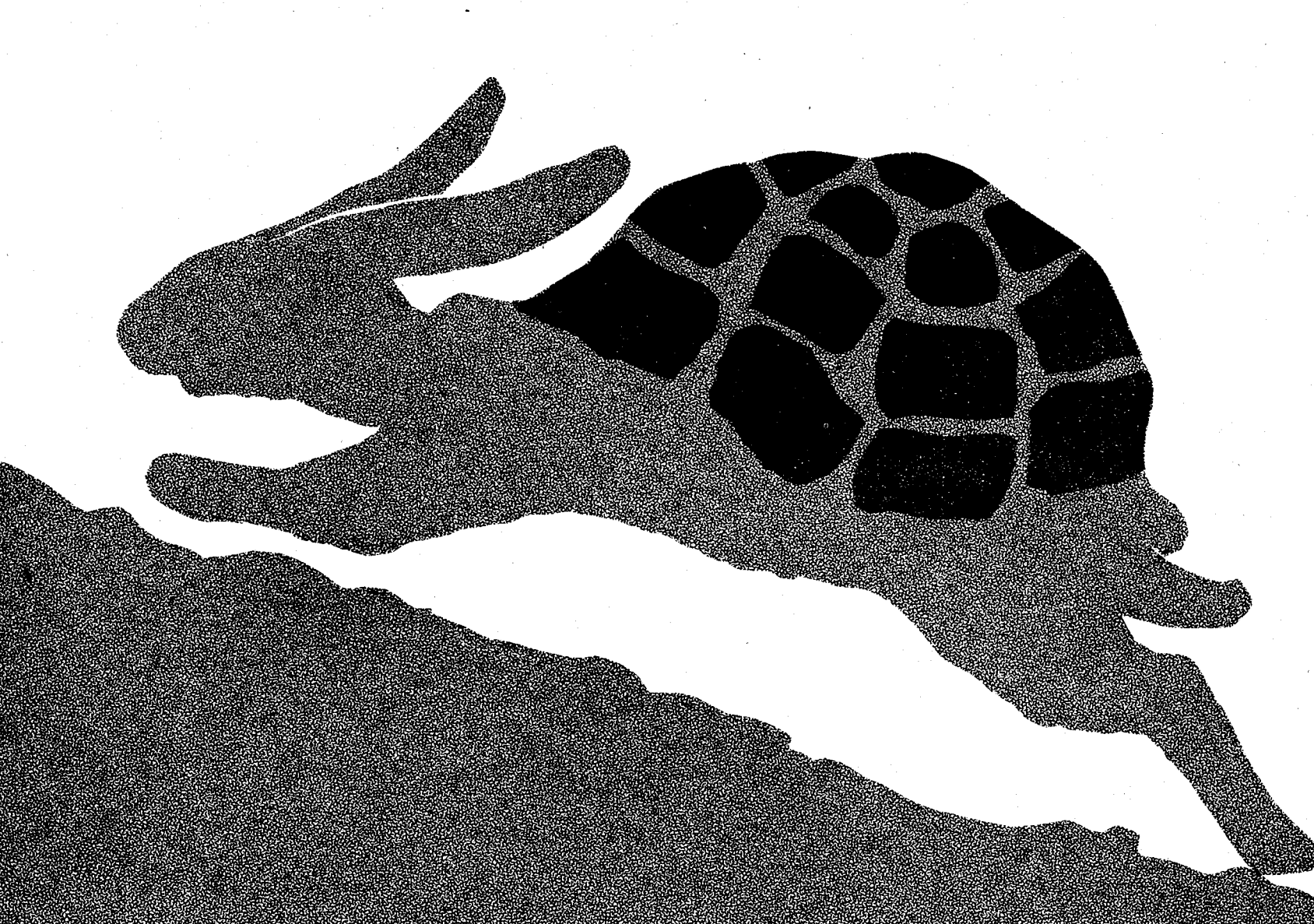
우리는 2차대전 이후 신식민지 전략에 의해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제국의 경제침략과정이 위와 같은 수순에 의해 드디어 탈기적 현상까지 왔음을 적시해야 한다. 정치적 주권의 문제가 새삼 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본질이 다 드러난 지금, 'UR반대 투쟁' '반외세투쟁'은 우리의 심각한 과제이며, 많은 노동력이 외국 자본의 사무적노동자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는 현 시점은, 사투전투적 노동운동이 민족자본주의의 함양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인식으로 활발히 노동운동의 발전에 임해야 할 때이다.

박 서 기

(한국보험노동조합 부장)



POSCO메세지 ⑥ - 1학기 중강편



‘토복이’를 아십니까?

토끼를 알고, 거북이를 아신다면 토복이도 아실겁니다.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자만하며 낮잠자다 창피만 토틈히 당하지만, 그래도 빠르고 현명한 토끼— 둔하고 느리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거북이— 빠르고 현명한 토끼와 끊임없는 노력의 거북이를 합친것이 바로 ‘토복이’입니다.

학개중 열심히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현명한 계획이래 열심히 노력하는것이 ‘토복이 정신’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입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